

업계소식

BOILER ENGINEERING

한국식 온돌난방 설치기준 만든다

온돌관련 건축법 개정 · 공포...근거규정 법제화

우리의 고유 문화자산인 '온돌난방'을 오히려 외국으로부터 배워야 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확산한 가운데 온돌·보일러 등 난방의 설치기준과 시공확인서 교부근거 규정 등을 법제화한 '건축법 제56조 개정법률'이 개정·공포됐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안은 '제56조(온돌 및 난방설비 등의 시공)건축물에 설치하는 온돌 및 난방설비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 및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근거해 정부는 보일러 등 난방설비설치기준과 시공확인서 교부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규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 시행은 내년 1월18일부터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한국열관리시공협회와 전국보일러설비협회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양 협회는 함께 "지난해 중국 난방위원회가 온돌기술교류협정을 위해 방한해 '한국식 온돌난방의 기준'을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그러한 기준이 없어 몹시 난감했다"며 "이제 우리의 온돌난방 기준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기준 마련의 토대가 생긴 만큼 양 협회가 힘을 합쳐 온돌 시방서 등의 기준을 정부에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온돌학회도 그 동안 각종 학술대회를 통해 "서방선진국은 에너지저장 절약기술의 하나로 바닥난방기술 개발에 적극적이고, 이 기술을 이용해 이미 상품화된 제품들을 독일과 일본에 출시하는 등 국제시장을 독점하려 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바닥난방 규정은 단순히 기계적인 바닥난방방법과 구조에 국한된 것일 뿐 바닥 접촉부분의 온도규정 등 적합한 규정이 없다"고 진단한 바 있다.

KOTRA도 '중국 등에 한국의 온돌난방을 수출하면 히트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해외수출시장 예상 히트아이템을 소개하며 '중국의 난방방식은 공열식(라디에이터, 난로)이었으나 2005년에 온돌난방을 확산시키기 위한 지

판채난협회(地板采暖協會)가 창립되면서 온돌난방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한국의 온돌에 대해 관심이 크다'고 소개해 한국 온돌의 빠른 상품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귀뚜라미, '좋은기업대상' 7년 연속 수상 여성의 눈으로 사회적 책임 다하는 기업 선정



귀뚜라미보일러 (대표 김규원)는 여성 소비자의 눈으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기업을 가려내 선정하는 '여성소비자가 뽑은 좋은기업대상'에서 가정용 보일러 부문에 7년 연속으로 수상했다.

올해 10회를 맞은

'좋은기업대상' 선정은 여성신문사가 리서치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40만 명의 온라인패널을 이용한 온라인 표본 조사 방식으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여성을 상대로 소비자 평가를 해 총 1만19명의 리서치 응답 결과로 이뤄졌다.

귀뚜라미보일러는 이번 조사에서 부문별 기업 인기도 1차 조사와 사회공헌도, 품질과 서비스 우수성, 친환경적, 윤리·도덕성 등의 세부항목 점수평가제 2차 조사에서 모두 1위에 선정돼 7년 연속 수상하는 영예를 앉았다.

대상을 받은 귀뚜라미보일러 대표 제품인 '거꾸로 타는 보일러'는 귀뚜라미만의 특허기술인 특수 연관을 사용해 위에서 아래로 타 내려가는 하향식 연소방식을 적용함으로써 내려갈 때와 올라갈 때 두 번에 걸쳐 열 교환이 이뤄져 열효율이 높은 제품이다.

또 한국 온돌에 적합한 저탕식 구조로 돼있고 백화현상이 없어 장기간 사용해도 고효율이 유지된다. 아울러 난방 가동 시간이 짧아 가스비가 월등히 절감되고 수명이 오래가는 보일러로 평가받고 있다.

귀뚜라미보일러 관계자는 "7년 연속 수상은 보일러 선택의 주 고객인 성인 여성 소비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의 결과물로 그 의미가 크다"며 "수상의 기쁨만큼 그에 못지않은 책임감도 느끼는 만큼 고객만족과 사회공헌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고 더욱더 좋은 기업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린나이, 보일러·오븐 고객만족도 1위 한국능률협회컨설팅 'KCSI' 발표



10월 24일 한국능률협회 컨설팅(KMAC)이 전국의 성인 남녀 1만924명을 대상으로

로 '한국의 고객만족도(KCSI)'를 조사한 결과 가스보일러, 가스오븐레인지 2개 부문에서 린나이코리아 제품이 1위를 차지했다. 특히 가스보일러는 올해가 10회째 수상이며 내구재 제조업중 2개 부문 이상을 수상한 기업은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를 포함해 3개 기업 뿐이다.

KCSI는 소비재 제조업, 내구재 제조업, 일반 서비스업, 공공서비스업 등 모두 4개 분야 105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국내 6개 대도시에서 사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1대1 면접으로 그 만족도를 수치화해 발표한 것이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측은 "1987년부터 가스보일러를 개발·생산해온 린나이코리아가 고객만족도(KCSI) 조사에

서 압도적 1위를 유지한 것은 고객 기대치보다 더 높은 만족을 제공하고자 최첨단 기술을 개발해온 결과"라며 "특히 보일러의 전자동 비례제어 시스템은 연료비를 절약시켜주기 때문에 특히 알뜰주부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또 린나이코리아가 최근에 선보인 친환경 콘텐츠보일러는 대형 중화기를 채택해 산성 응축수 발생 문제를 해결한 친환경 제품이라면서 이 때문에 보일러 내구성을 높이고 건축물 부식과 환경오염 문제를 예방했다고 평가했다.

본사에서 직영으로 A/S를 제공하는 린나이코리아는 전국 33개 고객센터센터에 전문요원 500여 명을 두고 상황발생시 즉각 파견해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겨울철에는 서비스 전문요원이 24시간 대기하는 '겨울철 24시간 서비스', 여름철에는 고객 가정을 방문해 미리 보일러를 점검해주는 사전서비스(B/S)를 꾸준히 전개하고, 지난 2006년엔 국내 보일러업계 최초로 가정용 가스보일러 무상보증기간을 3년으로 연장했다.

이제 신용카드 포인트로 보일러 구매

경동나비엔 '세이브서비스 실시' ... 최고 50만원까지

경동나비엔이 삼성카드로 보일러를 구매할 경우 적립된 포인트 또는 현금으로 대금을 갚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최고 50만원까지 최장 6개월까지 가능하며 세이브서비스 이용 초과금액은 6개월 무이자 할부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80만원짜리 경동나비엔 보일러를 구매할 경우 세이브서비스로 50만원을 포인트나 현금으로 6개월까지 갚아가고 나머지 30만원은 6개월간 무이자로 할부 결제하는 것이다.

경동나비엔 세이브서비스는 경동나비엔 세이브 서비스 대상카드를 이용해 보일러를 30만원 이상 구매할 경우 구

매대금 중 최고 50만원까지 정해진 할부기간 동안 세이브서비스 이용금액과 정해진 할부 수수료를 균등하게 분할해 신용카드 결제일에 현금 또는 포인트로 갚아가는 서비스를 말한다.

대상카드는 플레티늄, 티클래스, 빅보너스, 아멕스, 에스마일, 공무원연금 삼성카드 등이며 삼성카드 홈페이지(www.samsungcard.co.kr)에 들어가서 '포인트월드→포인트구매하기→세이브→경동세이브'를 이용하면 된다.

경동나비엔 관계자는 이와같은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의 보일러 구매에 대한 비용부담을 낮추기 위한 것으로 특히 삼성카드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롯데기공 어음신용도 '투자등급'

안정적 차입금 만기구조 등으로 적기상환능력 보유

한국신용평가(이하 한신평)는 롯데기공의 기업어음 신용등급을 투자등급인 'A3'로 평가했다.

기업어음 신용등급은 신용도에 따라 A1에서 D까지 6개의 등급으로 구성돼 있으며 A1~A3는 적기 상환능력이 인정되는 투자등급이고 B와 C는 환경변화에 따라 적기 상환능력이 크게 영향 받을 수 있는 투기등급이다. D는 상환불능 상태다.

한신평은 롯데기공의 기업어음 신용등급을 발표하며 평가요소로 △주택사업 비중 확대는 다소 부정적이나 다각화된 사업구성, 안정적 사업 접근으로 사업가변성은 제한적 수준에서 관리되고 △비건설투자의 저수익구조로 수익 창출력 다소 미흡하며 △운전자본 부담확대로 순차입금이 증가 추세이나 상당수준의 재무용통성 보유하고 있으며 △롯데그룹의 우수한 신용도는 긍정적 요인이라고 밝혔다. 특히, 수익성에서 주택건설부문은 외형성과 영업이익률 개선으로 영업이익창출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

가고 있으나 시장수요의 정체, 경쟁 심화로 보일러사업 등 열기부문의 영업적자가 지속되고, 냉기·산기 부문의 채산성이 떨어져 전반적인 수익구조는 다소 낮은 수준이라며 비건설부문의 다소 취약한 사업지위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수익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롯데기공이 환경시설(2006년 매출구성비, 13%), 음식료냉기(12%), 가스보일러(10%), 주차설비(8%), 주택건설업(58%)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주택건설부문 중심의 성장을 이루고 있어 분양경기에 대한 영업가변성은 다소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택건설 중심의 외형성장으로 운전자본 부담이 크게 확대되어 재무안정성이 다소 훼손됐으며 지방의 분양경기 저하양상을 고려할 때 당분간 큰 폭의 재무안정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현 차입수준이 크게 부담되는 수준이 아니라 안정적 차입금 만기구조, 자산담보여력, 차입한도여력, 그룹의 우수한 영업적·재무적 지위 등으로 안정적 적기상환능력을 갖췄다고 평가된다고 밝혔다.

대성셀텍, '2007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공동운명체로서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이 선정이유

대성셀텍(대표 고봉식)이 노동부가 선정한 '2007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선정됐다.

이번에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선정된 대성셀텍은 '노사가 함께하는 혁신'에 있어서 기업의 성쇠와 생사고락을 같이하는 공동운명체로서 상생의 노사관계를 구축한 것이 선정 이유로 꼽혔다.

대성셀텍은 특히 노사가 공동 추진하는 노사혁신활동(TPS)은 '윤리훈련', '혁신기본갖추기', '전원참여 5S 운동', '노사한마음 공동체 훈련' 등으로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생존기반 구축에 바탕이 됐다고 밝혔다. 또 노사간부를 중심으로 품질혁신 프로그램인 '6시그마' 추진은

'노사혁신활동'과 더불어 생산성 향상과 원가절감 경영환경, 의식개혁 등의 성과를 이뤄내기도 했다.

대성셀텍은 이 같은 노사화합의 분위기 속에서 9월 초 대기전력 1W를 실현해 가스비뿐만 아니라 전기료까지 절감해주는 'S라인 프리미엄 콘텐츠' 보일러를 출시하기도 했으며, 중국에 이어 미국 수출용 보일러까지 도전하고 있다.

한편, 이번 '2007 노사문화 우수기업'은 노동부가 2차에 걸친 엄격한 심사를 통해 대성셀텍과 국민은행, 현대중공업 등 총 98개 기업이 선정됐다. 노사문화 우수기업에는 앞으로 3년 동안 세무조사 유예, 정책자금 지원 시 가점 부여, 중소기업 구조개선·경영 안정자금 지원 시 우대, 은행융자·대출시 금리 우대, 신용평가시 가점 부여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또 연말에 선정되는 노사문화대상 신청자격도 갖게 된다.

귀뚜라미보일러, 고효율 제품 선보여 에너지대전에서



(주)귀뚜라미보일러(대표 김규원)는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코엑스(COEX) 태평양홀에서 열리는 에너지 종합무역전시회인 '2007년 대한민국 에너지대전'에 참가해 고효율 냉난방 제품을 대거 선보여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귀뚜라미는 총 20부스 규모의 독립부스를 마련해 고효율 대표 브랜드인 거꾸로 타는 보일러를 중심으로 첨단 비례제어 및 맞춤형 가스보일러, 경유 값에 대비하여 최대 80%까지 연료비의

절감효과가 있는 거꾸로 냉난방 에어컨, 에너지 보존형 환기시스템 등 난방에서 냉방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고효율 제품들을 전시했다.

특히, 부스 중앙에 제품별 상담코너 및 냉난방 시스템 시연장을 만들어 제품 개발자가 직접 시연을 통하여 제품을 설명하고, 다양한 관측활동과 보다 저렴한 가격 구조의 현장 예약판매를 실시하여 단순한 전시장이 아닌 실속형 관람객들을 위한 행사 장소로 마련됐다.

또한, 전시기간동안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방송광고 NG 모음을 방영하여 제품홍보와 함께 재미를 선사하고, 미니 카페를 마련해 차와 음료를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관람객들에게 편안한 제품 상담과 휴식공간이 될수 있도록 마련했다.

귀뚜라미 조순제 홍보팀장은 “귀뚜라미가 보일러 전문 업체에서 냉난방 전문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는 만큼 에어컨 및 냉난방이 브랜드인 ‘홈시스(Homsys)’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다.”면서, “에너지 전시회에 걸맞은 다양한 고효율 제품을 통하여 기술 선두 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높여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린나이 팍스윈드오케스트라, 역사축제 초청 공연 친근한 음악 연주하며 시민들에게 흥겨운 시간 제공

린나이코리아는 지난 20일 서울 역사축제에서 국내 유일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관악 합주단인 '린나이 팍스 윈드오케스트라'공연을 통해 참석한 시민들에게 가을날의 좋은 추억을 선사했다.

이번 '제6회 서울 역사축제'는 서울시가 시민을 위해 역사발에 야간 조명을 설치하고, 각종 음악공연과 역사 발 밤길걷기, 역사공예 체험, 사진 전시, 예술 체험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는 행사다.

린나이 팍스 윈드오케스트라는 이날 오후 7시20분부



터 트럼펫과 밴드 연주, 색소폰중주, 영화음악 록키 등 가을에 어울리는 친근한 음악과 함께 단원이 동물가면을 쓰고 정글 환타지를 연주하는 이색 퍼포먼스로 참관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경동나비엔, 롯데홈쇼핑서 보일러 판매 특별 판매가, 무이자 할부, 설치비 면제 등 다양한 혜택



경동나비엔(대표 김철병)이 롯데홈쇼핑을 통해 '나비엔 뉴콘덴싱on水'를 판매한다.

이 홈쇼핑 판매행사는 지난 9월 한국소비자월빙지수에서 보일러 제품으로 최초 4년 연속 1위 수상을 기념

하는 고객 사은 행사다. 특히 홈쇼핑 구매고객에게는 10개월 무이자 할부, 롯데상품권 5만원권 증정, 무상 AS 3년 등 다채로운 소비자 혜택이 제공된다.

경동나비엔 특관팀 박경준 차장은 “열효율과 온수능력이 떨어지고 AS부담이 큰 노후 보일러를 교체하려는 소비자들이 이번 홈쇼핑 판매를 주로 이용할 것으로 보인

다”며 “대한민국 신기술 으뜸상 수상과 한국소비자웰빙 지수 4년 연속 1위 수상으로 ‘웰빙보일러’로 자리매김한 경동나비엔의 보일러 기술을 홈쇼핑 방송을 통해 자세히 알게 될 것”이라며 기획의도를 밝혔다.

‘나비엔 뉴콘덴싱 on水’는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일반 가정에서도 호텔에 온 듯 풍부하고 쾌적한 온수를 사용할 수 있게 개발한 신개념 보일러다. 또 난방에 있어서도 특허 기술인 최적 난방제어 ASA(Auto Sense & Active)컨트롤을 개발해 난방의 품질을 한 차원 높여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한다. 온수중심의 웰빙보일러 ‘나비엔 뉴콘덴싱 on水’는 지난 4월 ‘대한민국 신기술 으뜸상’ 생활가전 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기술력을 인정 받은 바 있다.

특히 이번 홈쇼핑에는 보일러 제품에 강렬한 레드컬러와 고급스런 디자인을 접목한 업그레이드형 모델(사진)이 판매돼 소비자의 주목을 끌 것으로 보인다. 최근 TV, 냉장고 등 고급 생활가전에 사용되는 레드컬러는 인테리어의 포인트 색상으로 주로 사용되며 모던한 이미지, 따뜻한 느낌을 주고 혈액순환을 촉진해 기분전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동나비엔 롯데홈쇼핑 제품 상담문의는 080-220-5252에서 가능하다. 방송 후 간편한 문의 접수만 하면 경동나비엔의 전문 상담원이 해피콜로 연락해 정확하고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대성, ‘디큐브문화축제’ 공연장무상대여 각종 공연 단체와 대학 동아리에 기회 제공

대성(회장 김영대)은 신도림동 ‘디큐브 문화축제’ 공연장을 각종 공연 단체와 대학 동아리들에 무상으로 대여한다고 밝혔다.

약 300명의 관객이 들어설 수 있으며 총 430㎡ 크기



의 ‘디큐브 문화축제’ 야외 공연장은 신도림역 대성 ‘디큐브씨티’ 모델하우스 앞에 있으며, 9×6.5m 크기의 무대와 각종 조명, 음향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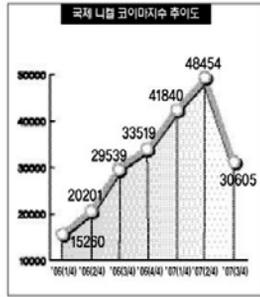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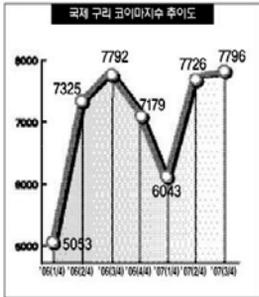
대성은 이 공연장을 ‘디큐브 문화축제’가 열리는 매주 금요일을 제외하고 공연을 원하는 공연 단체와 대학 동아리에 무상 대여할 예정이며 비오는 날이나 겨울철에는 내부도 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대성산업 건설부문 이효산 과장은 “신도림동을 중심으로 서남부권은 이렇다 할 공연장이 없어 각종 공연 단체가 무료로 공연할 기회가 없어 안타까웠다”며 “매주 금요일 시민들을 위해 무료로 여는 ‘디큐브 문화축제’와 더불어 이번 공연장 무상 대여로 재능 있는 문화인들에게 공연 기회를 부여하고 공연 문화를 활성화하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대성 ‘디큐브 문화축제’는 봄과 가을, 매 주말 인사동 대성 본사 광장에서 열리는 행사다. 신도림동 ‘디큐브 문화축제’를 통해 매주 금요일 저녁에 클래식, 재즈, 민속음악, 대중가요 등 다양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가스 이어 기름보일러도 가격 인상 동·스테인리스 등 원자재값 상승 여파

고유가로 기름값 상승이 이어지면서 내수 판매량이 매



년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기름보일러의 가격이 인상 될 전망이다.

스테인리스 가격은 안정세를 찾았지만 기름보일러 내부에 들어가는 다른 원자재 가격의 인상세가 여전해 자체 흡수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특히 기름보일러 내부에 들어가는 동 가격은 여전히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1990년대 한창 인기를 누렸던 기름보일러는 도시가스 보급이 확대되고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제유가의 가격상승과 더불어 기름 값이 상승하자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아왔다.

때문에 매년 기름보일러의 판매량은 해마다 하락하는 추세로 그나마 중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의 수출 수요가 명맥을 유지할 정도다.

가뜩이나 수요가 급감중인 기름보일러시장은 최근 수 년 동안 원자재 가격이 2~3배 이상 급상승하면서 제조사들의 수익성을 크게 위협할 정도로 결국 가격인상 카드를 꺼내든 것.

현재 기름보일러를 제조하고 있는 귀뚜라미보일러와 경동나비엔은 각각 최소 5 ~ 10% 정도 상승된 가격을 일부 모델에 적용할 방침이다.

한 보일러 제조사 관계자는 “기름보일러의 판매량이 줄어 드는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을 이유로 판매가격을 올리기가 쉽지 않았지만 원가 인상 요인을 더 이상

자체 흡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이번 가격 상승으로 제조사는 더욱 품질이 좋은 보일러를 개발할 수 있게 됐고 소비자들은 그에 걸 맞는 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보일러 제조사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을 이유로 올해 들어 잇따라 가스보일러 가격을 많게는 10%까지 인상한 바 있다.

라니산업, 원적외선으로 요리하는 ‘썬로스터’ 불꽃이 꺼질 염려 없고 부탄캔을 사용 더욱 편리



난방과 주방기기 대표 기업인 라니산업(대표 함희인)은 원적외선으로 요리해 고기가 타지 않고 육질이 살아 있는 요

리가 가능한 원적외선 세라믹 그릴 ‘썬로스터(SUNROASTER, 모델명: REP-929S, 929R)’를 출시했다.

기존의 가정용 그릴에는 찾아 볼 수 없었던 세라믹 플레이트를 장착한 썬로스터를 이용하면 더 맛있는 구이가 가능하다. 장착된 세라믹 플레이트가 원적외선을 방출, 고기가 타거나 늘어붙지 않아 음식 고유의 맛을 보존해 준다.

부탄가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휴대성이 높아 어디에서나 맛있는 요리를 즐길 수 있으며 기존 휴대용 가스레인지보다 부탄캔 사용시간이 20분 정도 길어 연료까지 절감할 수 있다.

이 제품은 신기술이 대거 장착된 것이 특징이다. 강한 바람에도 불꽃이 꺼지지 않고 다시 점화되는 국내 최초 꺼짐 방지용 화염 감지식 재점화 장치는 불이 꺼져도 자동으로 재점화가 돼 가스 유출을 막아 안전하며 야외 조

리시에도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세라믹 일체형 자동 연속점화장치와 부탄용기 교환시기 자동알림장치는 더욱 편하게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게 한다.

여러가지 고기와 생선, 해산물, 채소 구이를 할 수 있는 썬로스터는 전골요리 팬으로도 교체할 수 있으며 고급 불소 코팅 팬을 사용해 음식물이 눌러 붙지 않아 청소도 간편하다. 썬로스터의 A/S는 린나이에서 제공한다.

코퍼스트, 천장형 난방기 '에코썬' 출시 원적외선 쾌속 난방으로 30% 난방비 절감



코퍼스트(대표 조은주)는 원적외선 복사열 난방방식의 천장형 난방기 '에코썬(ECOSUN)'을 출시했다.

이 제품은 지난해에 출시한 천장형 난방기 '바이썬'보다 향상된 제품으로 어린이나 노약자의 손에 닿지 않도록 천장에 설치하기 때문에 파손의 걱정이 없다. 또 작동 후 4분 이내에 가열판이 가열되면서 원적외선이 골고루 퍼지므로 빠른 시간 내에 난방효과를 거둘 수 있다.

아울러 설치 후 유지보수나 관리비가 거의 들지 않으며 원적외선 복사난방 효과와 쾌속난방 효과로 대류난방 방식에 비해 30% 이상의 난방비 절감 효과가 있다.

음이온 방출효과로 공기청정과 유해 물질 중화효과가 있고 수분 증발로 인한 건조증이나 산소 소모, 먼지나 소음, 진동, 유해가스 발생 등도 없다.

코퍼스트는 전기 냉·난방기를 주로 공급하는 중소기업으로 욕실용 난방기, 벽걸이형 전기 방열기, 전기 라디

에이터, 이동식 에어컨, 제습기, 전기 컨베터, 천정형 복사열 난방기 등을 생산하는 업체다.

중소 보일러 저녹스 교체시 지원 인천시, 10톤 이하 공사비중 65% 보조금 지급

인천시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목표 물질인 질소산화물(NOx) 저감을 위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10톤 이하 소형보일러를 저 녹스(NOx)버너로 교체, 설치할 경우 전체 공사비 중 65%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소형보일러의 경우 질소산화물(NOx) 방지시설 설치가 어렵고 설치대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저 녹스(NOx) 버너는 일반 버너에 비해 설치비가 2~4배 많이 소요돼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은 자발적인 설치가 어려워 일반 보일러 설치비의 차액만큼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저녹스(NOx)버너 설치 보조금은 국비 50%, 시비 15%가 지원되며 지난해 이후 올해까지 우선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2006년도에는 19개 업체의 34대 저녹스 보일러에 8억 2800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44개 업체, 71대의 보일러에 13억100만원을 지원, 추진 중에 있다. 또 내년에는 80대, 약 14억원의 보조금을 확보해 지원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재정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소형 보일러를 저 녹스(NOx)버너로 교체하는 사업을 꾸준히 지원해 2009년 세계 도시엑스포 및 2014년 아시안게임이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속에서 개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에관공, '4대 약속' 고객헌장 선포 지난 22일 에너지사랑봉사단도 출범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이기섭)은 지난 22일 공단 대강



당에서 임직원 4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객현장 선포식 및 에너지사랑봉사단 출범식’을 가졌다.

공단이 새롭게 선포한 고객현장은 ‘4쾌(快)의 약속’이라는 주제로 △고객의 요구는 흔쾌(淸快)히 △고객께서 유쾌(愉快)하게 △모든 업무는 상쾌(爽快)히 △고객의 가슴을 통쾌(痛快)하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의 만족도를 더욱 높이는 의지를 담고 있다. 또한 같은 날 에너지관리공단의 사회공헌활동 ‘Happy Energy Society’의 일환으로 추진된 ‘에너지사랑 봉사단’ 출범식이 함께 열렸다.

‘에너지사랑봉사단’은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기 위해 공단 직원들로 결성된 단체로 이날 출범식에서 1기 봉사단원 65명은 자발적 이웃사랑을 앞장서 실천할 것을 다짐했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이번 ‘4쾌(快)의 약속’ 고객현장 선포식과 ‘에너지사랑봉사단’ 출범식을 계기로 기후변화에 대비한 세계적 전문기관으로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고객과 지역사회로부터 지속적으로 사랑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보일러설비協, 지부 봉사활동 ‘눈에 띄네’ 인천·성남지부 ‘장애인시설’ ‘자원봉사박람회’ 지원

전국보일러설비협회(회장 박기준) 인천지부(지부장 권

봉갑)는 최근 지부임원 및 회원, 부녀회 40여명과 함께 강릉시 사천면에 있는 장애인수용시설 ‘축복의집’에 찾아가 대민봉사활동을 했다.

이 봉사활동에서 임원과 회원 그리고 협력업체에서 모금해 마련한 연탄 1000장을 전달했으며 그곳에 설치된 화목보일러, 쓰레기장, 축대 등에 대한 점검과 수리를 해주었다.

권봉갑 인천지부장은 인사말로 “인천지부가 매년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강릉지부와 인연이 있어서 자원봉사를 하게 됐다”며 “새벽 시간부터 봉사활동을 애쓰는 임원과 회원, 그리고 부녀회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보일러설비협회 성남지부(지부장 남예진)도 분당구 중앙공원 분수대광장에서 열린 ‘성남시 자원봉사박람회’에 참가해 모범적인 봉사단체로서 시선을 끌었다.

‘생활 속 실천! 자기개발을 위한 맞춤형 자원봉사’란 슬로건으로 치러진 이 행사에서 성남지부는 46개의 각종 봉사단체와 함께 불우이웃을 위한 일일찾집 개최와 ‘임마누엘의 집’을 방문해 난방기기와 배관을 점검·수리하고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의 집에 방문해 오래된 보일러를 교체해 주고 화장실, 상하수도 등을 개·보수했다.

보일러설비협회 성남지부는 자원봉사 활동 기간이 2년 밖에 안되지만 활발한 봉사활동으로 지역에서 인정받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강원도 홍천 재난지역과 여주 재난지역에서의 모범적인 봉사활동을 한 바 있다.

이 행사에는 이대엽 성남시장, 박기준 전국보일러설비협회 회장, 김영봉 자원봉사센터소장, 이수영 시의장 등이 참석해 참가 단체들의 활동을 격려했다.

경기소비자정보센터 '가스기소비자경보' 발령

○○난방관리, 관리실 사칭 점검 후 돈 갈취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일부 방문판매업체에서 보일러나 가스 점검을 빙자해 각 가정을 방문한 후 점검비나 부품 값을 이유로 돈을 받아가는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올해 이와 같은 사례로 접수된 상담건수는 20여건에 불과하지만 일단 피해를 당하게 되면 판매원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이미 서비스를 이행했다는 것을 이유로 보상을 거부함으로써 피해구제가 어려워 소비자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P씨(남양주, 30대, 여)는 지난 1월에 관리실에서 가스레인지 후드 점검을 나왔다고 해 점검비용으로 10만원을 냈는데 나중에 관리실에 문의해보니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해 점검자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또 다른 P씨(수원, 40대, 남)는 10월 초에 방문한 '○○난방관리'라는 곳에서 보일러를 점검받고 배관용 약품을 구입하면서 65만원을 지급한 후 나중에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준 것 같아 환급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당했다.

현행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는 '허위·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게 하거나 청약철회,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해 이를 위반할 때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소비자들에게 "일부 방문판매

업자의 허위 기만상술에 속지 말 것과 관리실이나 ○○공사를 사칭할 경우 반드시 해당 기관에 확인할 것"을 강조하고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소비자상담실에 문의하거나 사법기관에 고소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가스안전공사, 고객만족경영대상 수상

15일 능률협회컨설팅 '사회가치혁신부문 대상'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주관하는 고객만족경영대상 사회가치혁신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15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한국의 경영대상 시상식에서 가스안전공사는 사회공헌활동과 고객서비스 제고 등을 인정받아 고객만족경영대상 사회가치혁신부문 대상 수상업체로 선정됐다.

가스안전공사는 지난 2월 비전 2015 선포식을 통해 고객만족도 제고를 공사의 주요 경영방침으로 정하고 고객에게 신뢰받는 글로벌 가스안전 서비스기업이라는 중장기 비전을 제시했다. 또한 고객만족경영 전담부서를 고객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고객점검부서에서 제공하는 고객서비스 정보와 고객 불만족 사항을 수집해 사후 고객만족도 확인, 모니터링을 통해 그 결과를 경영평가

에 반영하는 등 직원 친절도와 참여도를 높이는데 노력해 왔다.

이밖에도 사회공헌활동의 경우 2005년부터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가스안전 이웃사랑 봉사단을 발족하고 부문별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가스안전공사는 능률협회컨설팅에서 주관하는 고객만족경영대상을 2004년 이후 4번 수상했으며 정부산하기관에서 실시하는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검사·검증분야 기관 중 3년 연속 최상위그룹 20%에 포함됐다.

산업용 가스계량기 첫 형식승인

대성계전, 가정용 디지털 가스계량기도 개발



가스계량기 전문업체인 대성계전(대표 최석해)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으로부터 산업용 가스계량기 3종에 대해 형식승인을 완료했다.

최근 대성계전에 따르면 지난 16일 터빈 계량기 6종(G65~G650)에 대해 형식승인을 받는데 이어 22일에는 로터리 계량기 8종(G40~G650)에 대해서도 형식승인을 받았다. 또한 막식 계량기 7종(G6~G100)도 29일 형식승인을 받았다.

계량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난 9월4일부터 도시가스용 7등과 LPG용 6등, 최대유량 1000m³/h이하(G650)의 산업용 가스계량기(막식, 터빈, 로터리)는 새로운 형식승인을 취득 후 개별 검정을 거쳐야만 판매가 가능하다.

수입사들은 지금까지 한 곳도 형식승인을 받지 못했다. 따라서 이번 대성계전이 처음으로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새로운 산업용 계량기 보급이 가능하게 됐다. 대성계전 외 대한가스기기와 대명아이티가 막식과 터빈, 로터리에 대해서 내구성 시험을 완료한 상태로 조만간 형식승인이 나올 예정이다.

한편 대성계전은 자체 개발한 가정용 디지털 가스계량기 G1,6과 G2,5에 대해 지시부 2개 항목과 전자장치 10개 항목에 대한 시험을 완료해 조만간 형식승인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G4에 대해서도 시험을 앞두고 있다.

1987년 12월 설립,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는 대성계전은 가스계량기를 비롯해 열량계, 온수계량기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지난해 10월에는 막식 가스계량기에 대해 최초로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으로부터 'M' 마크를 획득하기도 했다. 대성계전은 지난해 300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올해는 320억원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태양광주택10만호 사업 효용성 높다

99% 정상가동중, 만족도 81% 달해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99%에 이르는 설비가 정상가동 되는 등 사업의 실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이기섭)이 지난 11일 발표한 '태양광주택 사후관리 결과'에 따르면 조사 결과 설문조사에 응답한 1,202개소 중 99.6%에 해당하는 1,197개소는 정상가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5개소만이 주변 나무의 성장으로 음영이 형성돼 발전량이 저하되고 있거나 부품 고장 및 파손 등으로 작동이 되지 않고 있었다.

에관공은 문제가 밝혀진 수용가에 대해서는 해당 전문기업에 통보해 기기점검 및 부품수리를 하도록 조치했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설비만족도를 5단계 수준으로 나눠 묻는 설문에서는 '만족' 이상으로 답변한 수용가가 81%를 차지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소비자가 체감하고 있는 월평균 전기요금 절감액은 가구당 6만원 정도이고 월평균 10만원 이상 절감하고 있는 가구도 전체 응답자의 10% 정도에 이르렀다.

이번 조사는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사업이 추진된 2004년부터 지난 2006년까지 3개년간 설치 보급된 태양광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후관리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지난 3년간 설치된 3,669호의 전체 일반주택에 대해 가동현황, 만족도, 절감액 등을 묻는 서면조사와 전화조사가 병행됐고 정밀조사를 요하는 수용가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의 잠재력이 높다는 것을 증명했다"면서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최신 설비의 보급, 정부지원금의 증액, 상한용량 5kW까지 증대 등 다양한 소비자들의 건의사항을 검토하고 수용해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사업 목표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사업은 2012년까지 태양광으로 자가 발전하는 주택의 10만호 보급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일반주택이나 공동주택에 3kW 이하의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무상 보조하는 것이다.

표준의 날, 가스업계 수상 '풍성' 가스공사 '사내표준화대상' 경동나비엔 'KS인증대상'

산자부 기술표준원 주최 및 한국표준협회 주관으로 16일 코엑스에서 열린 제8회 표준의 날에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는 단체부문 사내표준화 대상, 경동나비엔(사

장 김철병)은 KS인증대상(제품안전분야)을 수상했다.

또한 밸브생산업체인 케이엠씨 정창무 사장과 가스안전공사 박희준 과장이 유공자부문 산업자원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사내표준화 대상수상은 산업기술 인프라의 핵심요소인 표준화를 적극 추진하고 기술혁신 및 생산성향상을 통해 국가경쟁력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뤄졌다.

가스공사는 한건의 표준 제정을 위해 각 분야 사·내외 전문가들로 구성된 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하고, 해당분야 팀장급이상으로 구성된 표준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공포하고 있다. 이어 기술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전사적으로 공유 및 업무에 활용하며, 제정된 표준은 관련기술의 진보 및 법규정 변경 등 환경변화에 따라 수시로 개정하고 있다.

또한 가스분야에 대한 기술표준화로 기술자립화 및 기술경쟁력 강화, 가스품질의 향상과 안정적인 가스공급, 업무의 체계화 및 단순화로 생산성 향상을 통한 원가절감 등 회사의 경영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영문판 기술표준을 제정하여 주요 기자재의 국제 입찰 등 구매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해 해외사업 진출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한편 경동나비엔은 제품안전을 위한 회사의 경영방침, 경영활동 및 제품 안전 대책 등을 24개 항목으로 분류해 평가한 '제품안전분야 KS 인증대상' 대기업 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는 안전한 제품과 체계적인 품질 관리를 위한 QM팀, 제품 출시 전 필드테스트를 통해 실사용 환경의 적응성을 검사하는 신뢰성팀 등을 구성, 제품 안전을 위해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전국 350여개 대리점을 잇는 24시간 A/S시스템 구축의 공적이 인정되어 수상했다.